

## [1 차시] 여성학과 주요개념들

### [학습내용 -1] 양성평등의 이론적 기반 -여성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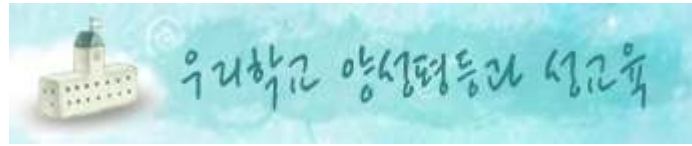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여성학은 1960년대 후반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페미니즘 제2의 물결과 인권운동 학생운동, 반전운동의 결과로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설되고 1980년에 여성학석사과정의 처음으로 미국의 켄트대학에 설립되었다.

한국의 경우 처음으로 유엔의 지원을 받아 1977년도에 이화여대에 여성학강좌가 개설되었으며 그 이후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다. 여성이 제 사회영역에서 겪는 억압과 차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과 사회 문화 미디어 과학 심리 등을 여성의 눈으로 입장에서 다시 보고 재해석하는 학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학문적인 이론이다. 대학의 여성학은 곧 성인교육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1980년대 전후에 진보적인 여성단체들(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통한 의식화를 하였다.

서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의 여성운동이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서구의 이론들을 참고로 혹은 우리의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여성들의 경험이 토대를 이루었다. 여성의 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역사와 현실 속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하도록, 남자의 역사(His story 즉 history)가 아닌 여성의 역사(Herstory)가 되도록 사회적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학문이다.

초기 여성학이론은 여성해방이론으로 불렸다. 인간으로서 여성이 당하는 이중적 억압의 문제와 그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전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이효재 교수가 편집한 '여성해방이론과 실제'라는 책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다가 여성에게 고유한 성의 억압의 문제가 더욱 다루어지면서 여성주의의 내용이 강화되고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러한 학문은 확대되어 여성운동으로나 교육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었다. 여성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여성부가 탄생하였고 2004년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하여 공직자들이 양성 평등한 정책을 기획 집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1 차시] 여성학과 주요개념들

### [학습내용 -2] 섹스와 젠더(Sex / Gender)

초기 여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으로서의 젠더(Gender) 개념이다. 남아선호사상이 유난히 강한 우리사회에서 아들이야말로 대를 이어가고 집안을 책임지는 일차적 성이다. 딸은 어차피 남의 집 식구이며 필요하다면 그저 만팔 정도 살림 밀천 정도라고 간주된다. 여성은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사는 성이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성은 불이익과 차별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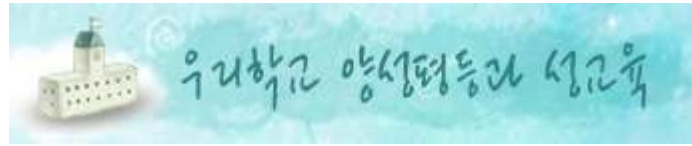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다 같은 인간인데 남성처럼 여성도 하나의 인간인데 하는 생각 왜 여성은 집안에 있어야 하고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애 낳고 키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전통적인 성차별주의자들은 타고 태어난 성의 문제. 즉 생물학적 성에서 구했다.

이에 반해 여성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사회화되었다는 주장은 여성에게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한다. 우리는 사회화되고 내면화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도 모른다. 나는 그냥 인형처럼 그렇게 길들여졌고 남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존재이다. 남성에게 나는 집에서 시중을 두는 아내이고 성적인 대상이며 이차적인 존재이다.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은 나뉘어져 있고 남성의 세계이고 여성은 자리(Men's World, Women's Place)이다.

이러한 길들임으로부터 벗어나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말고 사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그 시대의 최고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나는 여성으로 만들어졌으나 여성이기를 거부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젠더는 더욱 체계로 강화되고 이 사회는 성차를 조직하고 강화하며 이데올로기화한다. 이러한 젠더체계를 평등하게 변혁하기 위해서 우선 여성과 남성을 불평등하게 하는 법이나 제도를 고쳐야 한다. 불평등한 사회 체계에 젠더체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피억압자들이 있다. 여성노동자는 젠더체계와 경제체계의 이중적인 모순에 시달린다.

여성학은 생물학적 성차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제도로서의 젠더를 강조하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개인적 사회적 전략과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계급이나 인종들 억압체계들이 맞물리는 방식을 분석한다.



## [1 차시] 여성학과 주요개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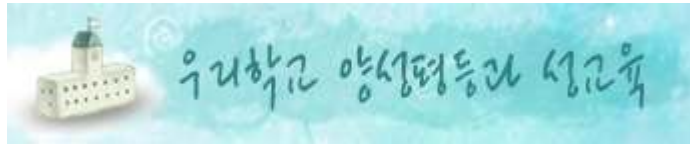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생물학적 성차별주의자의 주장

- 18세기에는 소위 남성과학자들은 여성신체는 남성 신체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한다. 여성 성기는 남성의 페니스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등한 것으로 보고 여성의 월경은 과도한 영양분의 배출로 보았다,

-20세기 초반과학자들 성호르몬을 발견하는데 남성호르몬으로 인해 남성의 신체적 특질은 적극성 공격성 능동성 외향성을 띄고 여성호르몬으로 인해 여성의 신체적 특질 소극성 수동성 내향성을 띤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여성의 몸에서도 남성호르몬이 남성호르몬에서도 여성호르몬이 발견되자 호르몬의 명칭을 바꾸어 안드로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프로세스 테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960,70년대 테스토스테론을 둘러싼 공격성논쟁이 다시 부활하여 테스토스테론을 수컷 쥐에게 주사했더니 공격성이 증가했다는 과학적 실험에 근거하여 호르몬 조절 차에 의한 남녀 차이를 두었다. 여성은 월경 등의 생리적 메커니즘이 주기성을 가지고 남성은 주기성이 결여되어 있다. 여성의 히스테리나 여성의 사회성부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 때문으로 주장되었다.

동양에서는 여성을 음 남성을 양으로 보는 유교적 사상에 기반을 두어 여성은 땅이고 남성은 하늘이라 하여 남존여비의 생활철학을 형성했다. 음양의 조화라고는 하나 생활에 있어서는 남아가 선호되고 대를 물리며 남성중심의 재산권 행사 등등 생활 곳곳에서 남성이 우선시되는 성차별적 문화형성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 [1 차시] 여성학과 주요개념들

사회적 성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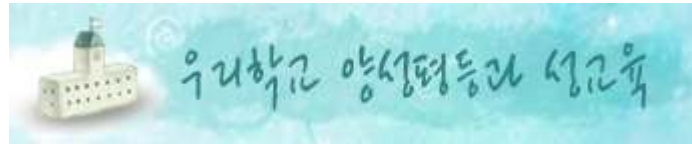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시몬느 보바르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적 성으로서의 젠더개념을 잘 드러내준다, 여성은 일차적 존재가 아니라 이차적 존재이며 제 2의 성이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만 보아도 여성은 2로 시작하고 남성은 1로 시작한다. 학교의 출석부 역시 남학생 후에 여학생으로 부르다가 국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가나다순으로 혹은 번갈아 바꾸는 학교들이 생겼다. 젠더이론은 마가렛 미드의 '세 부족사회에서의 성과 기질'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보면 분명해진다. 미드에 의하면 사람간의 차이는 조건화, 특히 유아기 동안의 조건화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비롯하며, 그 조건화의 형태 역시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미드가 연구로 택한 세 부족사회는 비교적 작은 세계라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보기 어려운 성차형성을 잘 볼 수 있다.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온순한 아라페쉬족(Arapesh)과 사나운 식인종 먼더거머족(Mundugumor), 품위 있는 인간머리사냥꾼 챔블리(Tchambuli)족을 통하여 성차는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관한 사회적 고안물 젠더임을 입증하게 되었다

아라페쉬의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비슷한 인성을 나타냈는데, 이 인성의 특징은 서구인들의 문화적 시각에서 볼 때, 부모 역할의 측면에서는 모성적이라고 부르고, 남녀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이었다. 그 곳에서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협동심이 강하고, 비공격적이며, 타인의 욕구나 요구사항에 재빨리 반응하도록 길들여지고 성욕이란 남녀 어느 쪽에 대해서든 그 자체로써 강력한 힘이 될 수 없다.

먼더거머의 사람들은 아라페쉬인들과 대조적으로 남녀 모두 무자비하고 공격적이며 성욕을 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애롭고 모성적인 면은 극히 무시하였다. 이들의 성격은 서구 사회에서는 소위 제대로 양육되지 않은 매우 과격하고 남성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아라페쉬나 먼더거머는 모두 남성과 여성의 기질을 대조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해 온 사회는 아니었다. 아라페쉬의 이상적 삶은 유순하고 민감한 남자가 역시 유순하고 민감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먼더거머의 이상적 삶은 과격하고 공격적인 남자가 같이 과격하고 공격적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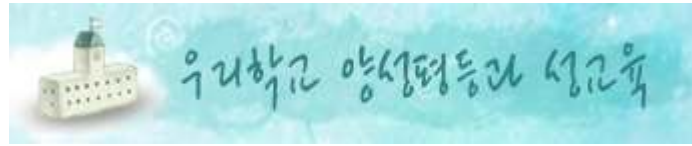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 [1 차시] 여성학과 주요개념들

세 번째 부족한 챔블리에서는 서구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성과는 정반대로, 여자는 지배적이고 객관적이며 통솔권을 가지는 반면에 남자는 책임감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의존적 성향을 갖는다.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은 상당히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수동성, 민감한, 아기를 귀여워하는 마음 등을 여성적인 기질이며 태도라고 간주해왔지만, 앞의 세 사례에서 이런 기질이나 태도가 어느 부족에서는 남성적 유형으로 간주되고, 또 다른 부족에 있어서는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에게까지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기질과 태도 등을 성과 관련 지어 보편화할 수 없다. 더욱이 부계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남녀 간의 주도적 지위가 실제로는 뒤바뀌어 있는 챔블리의 경우를 살펴볼 때 그러한 결론은 더욱 문제가 있다.

이 조사 자료가 시사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여성적’ 혹은 ‘남성적’이라고 말하는 인성적 특성들은 대부분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어느 한 시대에 남녀 어느 한쪽에게만 특정한 의상, 예절, 머리단장 양식이 허용되듯이 성에 따른 기질 역시 그만큼 임의적인 선택이다. 전형적인 아라페쉬 남녀의 행위가 전형적인 먼더거머 남녀의 행위와 크게 대조적인 점에서 사회적 조건화의 절대적 영향력을 인정하게 된다. 대다수의 아라페쉬 아이들은 쉽게 자족하며 수동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반면, 대다수의 먼더거머 아이들은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불안정한 인간으로 키워지는 현상은 사회적 조건화의 개념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길들여지며, 개인은 그가 속한 문화적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반응을 보이는 존재이다.



## [1 차시] 여성학과 주요개념들

### [학습내용 -3] 섹슈얼리티

여성억압의 기원이 반드시 젠더관계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여성에게만 고유한 성의 억압의 문제가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로 집중되면서 소홀 시 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에게 고유한 성의 억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때 맞는 아내의 문제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다루는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상담소들 같은 단체들이 1980년대 이후에 생겨났다.

억압은 여성의 몸 즉 생물학 적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곧 생물학적 성이라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있지 않다. 섹스와 젠더의 구분은 마치 자연적 신체가 젠더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한다. 학문의 영역에도 섹스는 자연과학에 젠더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다루게 된다. 그러나 생물학 적 성 역시 역사적 사회적 변화에 종속되고 이를 섹슈얼리티라고 한다.

섹슈얼리티에서 다루는 주제는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간섭 다이어트, 성형, 외모 가꾸기 낙태, 성폭력 포르노 등등을 다룬다.